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만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나 생각이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가운데선원의 대령스님께 여쭙어 응대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가운데선원 ●FAX: (031)470-3116



대령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813호 현대불교
2010년 12월 8일(음 11월 3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법공양 페이지

25

짧은 한 생을 헛되이 보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집안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집안식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모르는 그런 부분을 좀더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 스님네들 마음으로써 온 우주 누리를 다 겸해서 삼 배를 올리고 입정을 하면 되지만,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것을 봐 왔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고 저기서는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게 전부 방편 아닌 것이 하나도 없죠. 우리가 몸을 씻고 다니는 것도 남들이 더럽게 보지 말라고 그래서 씻고 다니는 거거든요. 화장을 하고 면도를 하고 그러는 것도 역시 그렇고요. 그렇듯이 부처님을 모시고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왔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집 안에다가 모셔 놓고 켜데기만 믿고 돌아가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게 사불(邪佛)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법당에 모셔 놓고도 사람들의 손을 거치고 불이고 그러는데, 만약에 샅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흑사나 사(邪)로 빠져서 여러분에게 치명적인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집안식을 다시 하는 겁니다.

이 법당에는 왜 부처님 한 분만 모셔 놓느냐 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대개 절에 가면 삼 불을 모셔 놓거든요. 문수, 보현, 부처님, 이렇게 삼 불을 모셔 놓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문수는 부처님의 왼팔, 또 보현은 바른 팔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벽을 치면 붓장이 울리듯이 우리가 알아채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는 부처고 한생각을 냈을 때는 문수고 한 몸이 움직여졌을 때는 보현이구나 하는 걸 말입니다.

그러면 부처님만 그러시느냐.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가 있고 뭘 하고자 하면, 예를 들어서 집을 짓겠다 한다면 '설계를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림 · 최주현

마음을 낼 때는, 가만히 있던 통들이 일심으로 한 부처가 됐든 벌써 마음을 냈으니까 그 한 부처는 마음대로 하나로 몰아 줍니다. 하나로 몰아 줘요.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이, 마음을 냈으니까 법으로 따라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수와 부처가 둘이 아니라 가만히 있을 때는 문수가 그냥 부처로 하나가 돼 버리고, 또 생각을 냈을 때는 부처님이 문수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법이 마음을 내는 거라면, 마음을 냈으면 반드시 몸이 움직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보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신이라고 하는 거는 보현이 화해서 응신이 됐을 때, 자꾸 바뀌어서 응신이 됐을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아버지 노릇을 하다가 회사에 나가시면 금방 바뀌죠? 과장이니 뭐, 직원이니 하고 바뀌죠? 바뀌어서 일을 하시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수가 한생각을 냈을 때는 보현과 둘이 아니게 되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부처고 한생각을 냈을 때는 법신이자 바로 문수란 말입니다. 그리고 한 몸이 움직여졌다 할 때는 보현이고, 바로 그 보현이 화해서 바로 응신으로서 나뉘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보현이 응신으로서 화해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소원에 같이 응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곤충에 이르기까지도 응해 주십니다.

그러니 한생각이 그렇게 중요한데 한생각을 아무렇게나 쓰신다면 어떡합니까. 뭘 가지고 한생각이라고 하느냐? 여러분의 몸속에 모든 생명들이 세로 하나하나에 꼭 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뚱이가 여러분이니까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 생명과 모습과 의식들이 그렇게 몸속에 꼭 찻 있는데 내가 산다고 하며 내가 했다고 하며, 내가 하기는 뭘 했습니까? 내가 먹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 나, 나, 나 하다가 보니

까 그냥 영겁결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뇌가 터져 나오죠.

반야심경에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 아니라. 모든 게 공하였느니라.' 이랬죠. 그런 걸 내가 '고정됨이 없이 나투기 때문에, 찰나찰나 나투기 때문에' 라고 붙여 놔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모두가 공했다는 그 자체가, 우리 몸속에 많은 생명의 의식들이 있는데 목이 마르다고 속에서 "나물 좀 주시오." 하고 말은 안 해도 내 목이 마르단 얘깁니다. 그것은 속의 중생들이 물을 달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물을 달라고 하니 내가 목이 마른 겁니다. 내가 그냥 목이 마른 게 아니고 수분이 떨어지니까 수분을 넣어 달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한 컵 마신단 말입니다. "아이, 시원하다." 이러죠? 그러면 그 속에서 시원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 같이, 하나도, 요런 티끌 하나도 빼 놓지 않고 조그만 생명들도 다 같이 먹었던 얘깁니다. 더불어 같이 먹었으니까 공사했죠? 그리고 공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공심이란 말입니다. 또 공체죠? 여러분이 혼자 살 수는 없어요. 그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작용을 해 주니까 여러분의 몸이 움직여지게 돼 있죠. 혼자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그 수만의, 헤아릴 수 없는 수만의 생명들이 움직여지게 되니까 큰 몸 하나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러니 공체면서 바로 공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더불어, 내가 물을 마셨는데 내가 물 마셨다고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내가 '나는 물을 마셨어.'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아버지 노릇만 합니까? 형님 노릇도 하고 아들 노릇도 하고 사위 노릇도 하고 남편 노릇도 하고, 별 노릇 다 하고 다니시죠. 그런데 어떤 거 할 때 어떤 걸 했을 때 어떤 걸 먹었을 때, 어떤 걸 봤을 때 어떤 걸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만

26면으로 계속

누워하는 참선 + 와선체조

와臥禪 선

중단전차크라(명치, 화병, 상기병) 단전
시원하게 ~ 뚝어 줌

호흡조율, 몸뚱아리 초월, 공(空)삼매 즉석 체험
머리에서 잡생각 망상이 깨지면 별때처럼 빠져나감
엄청난 오로라 전신에 꼭 찬 황홀경 누구나 체험
진짜 달콤한 감로침! 행복감 체험

피로회복 · 면역력증대 체험 100%

발 무릎 꼬리뼈에서 냉기, 병기, 나쁜 기운 빠져나감
스트레스해소 · 우울 · 불안 · 고민해소 체험 100%

▶대상: 누구나, 스님, 선생님, 교수님, 연구직, 예술가
템플스테이 운영자, 출가예정자, 참선, 위빠사나
고시생, 수험생, 유능한CEO, 사회지도자

- Ⓧ 아니빠나사따 수행이 잘 안 되시는 분
- Ⓧ 심장박동, 생각, 마음 보기 뚜렷한 체험이 없는 분
- Ⓧ 참선, 염불, 절, 명상수행의 진전이 없으신 분
- Ⓧ 목, 뒷골, 어깨, 명치, 단전이 저절로 풀리고, 똥똥 체험
- Ⓧ 꿈 많고, 자다깨다 반복 잠에서 빨리 깨어나지 못하는 분
- Ⓧ 스트레스지수 면역력 콜레스테롤 엔돌핀, 토탄민, 세로토닌
검사해 보시면 100% 놀라운 확신

♣ 청견스님 직접 교육 수행지도 ♣

☎ 02)456-0035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법당)

www.법왕정사.kr (와선특강)

▶매주 화요일 · 절교육, 2011년 1월부터 수행템플스테이 운영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가 느려짐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체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입니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임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됩니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서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똥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통증 제거 기술 무료교육

스님들 요즘 사찰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원심수기요법을 배워 활용하신다면,
사찰운영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심수기는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즉석에서
제거할 수 있는 기술로 배우는 데도
쉽고 간단한 기술입니다.

원심수기는 침이나 지압도 아니며 외국에서
들어온 기술도 아닌 우리전통기술입니다.

-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7시부터

연락처 : 한의원 019-305-9138

* 또한 불자님 중에 한의사 선생님을
초빙합니다. (숙식제공 가능)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상담대환영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예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